

니켈 12%·티타늄 30% ↑...날개 단 원자재값

광주·전남中企 안팎 악재

고유가, 환율하락에 최근 수입 원자재값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부족으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납품단가를 맞추지 못해 속살이를 하고 있는 업체도 늘어나는 상태다.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니켈의 2월 평균가는 1t당 4만1천584달러로, 전월보다 12%나 급상승한 데다 3년 새에 3배 가까이 뛰었다. 2월 평균가가 1t당 330달러이던 고철은 전월대비 8%, 1천840달러이던 납도 7% 올랐다. 티타늄은 무려 30%나 뛰었다. 하남산단내 A업체의 경우 세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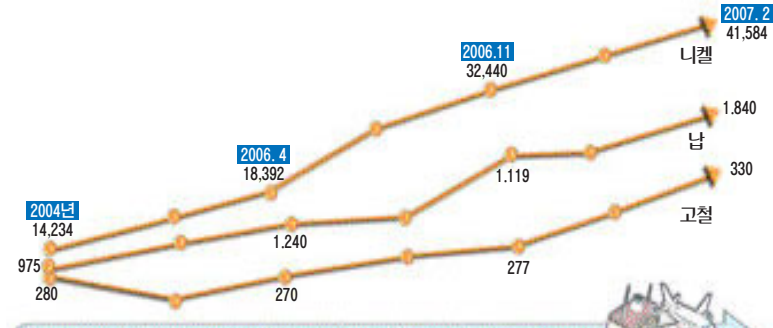
납품가는 제자리... 채산성 악화로 공장가동 중단 위기

나 냉장고 등 진공증착 표면처리용 원재료인 티타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올 초까지만 해도 매달 1천500만~2천만원 어치의 티타늄을 사용했으나, 2월 이후 원자재값이 30%까지 치솟아 2천만~2천6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납품단가는 제자리 결음을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첨단산단내에서 기계구조물 센서를 생산하는 B업체도 A업체와 다르지 않다. B업체는 니켈과 납 성분은 재료로 만든 중간재를 이용해 센서를 제작, 수출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올 초 니켈·납 등 수입 원자재값이 오르는 바람에 중간재도 덩달아 12%나 상승, 생산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수출단가는 제자리 결음이고 원달러 환율마저 떨어져 채산성 악화로 애를 먹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동기 제조업체인 C사도 구리와 고철가격 상승 때문에 고전 중이다. 구리의 경우 지난 2월 1t당 5천달러에서 3월 6천500달러로 30% 올랐다. 매달 200~250t의 구리를 사용하고 C사의 경우 원자재값으로 30만~35만달러를 추가로 지출, 채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원자재값에 있다. 대부분 중간 수입상이나 가공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원자재값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영향을 받는 게 보통이다.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소재를 대체하거나 ‘돈 안되는’ 제품을 버리고 신기술·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위기 타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개발 등은 하루아침에 해

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원자재값이 내리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릴 뿐이다. 소손산단내 D사 관계자는 “납품단가나 수출단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원자재값 인상분을 고스란히 회사가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면서 “할 수 없이 비정규직 인력이나 공장가동률을 줄이는 비정상적인 처방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주택대출·유동성 규제 아파트값 안정에 기여”

금융연 동향 보고서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최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제한, 1인 1건 대출제한 등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11 대책이 발표된 후 버블세븐 지역과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경기도 과천, 파주 지역의 집값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조정세를 보이는 데는 담보대출 규제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유동성과 아파트 가격 간 관계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예금지급준비율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정책이 주택대출을 감소시키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금융연에 따르면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최근 계간 금융동향 보고서에 수록된 ‘아파트 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금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간에 쌍방향으로 그레인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각의 변화가 상호 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레인지 인과성(Granger causality)은 한 변수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세관 ‘관세도우미’ 효과 봤다

여행자 범규준수 크게 향상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손준준)이 운영중인 ‘Customs-Family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Customs-Family제’는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모범 여행가이드를 세관행정에 참여시켜 여행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친절한 세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광주세관이 전국에서는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6년 8월 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유치건수는 132→127건, 조사의뢰건수는 3→1건,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리산 ‘행운의 클로버’

광주신세계 주최 ‘지리산 권역 특산물전’이 지난달 30일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1일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행운의 네잎 클로버 화분을 살펴보고 있다. 특산물전은 5일까지 열리며, 화분은 개당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제공)

신채널·방카·연금 영업본부 신설

대한화재 조직개편

또 흡수핀센터와 장기TM센터를 신채널영업팀으로 통합하고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마케팅팀을 신설했다.

대한화재는 조직개편과 함께 내영규, 김동우, 임수진, 반석규 씨 등 4명을 임원(이사대우)으로 선임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상용근로자 23만3,000명

2000년보다 38.8%↑

지역 취업자 수는 61만9천명에서 지난 2000년 55만3천명에서 11.9%가 증가, 경기(28.8%)·대전(14.1%)·울산(13.0%)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 종사자 수는 2000년 19만4천명에서 2006년 18만1천명으로 6.9%가 감소했으나, 임금 근로자는 35만9천명에서 43만8천명으로 22%가 증가했다. 특히 임금근로자 가운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수는 2000년 16만8천명에서 23만3천명으로 38.8% 증가해 경기도 47.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4만명으로 2000년 32만명에서 6.3%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여성은 23만3천명에서 27만2천명으로 15.9% 늘어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반영했다.

연령대로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4만1천명에서 11만6천명으로 무려 17.7%가 감소한 반면 30~49세 중장년 취업자는 30만4천명에서 35만9천명(18.1%)으로 늘어 노동인력의 고령화를 보여줬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아시아나 대졸 신입 500명 공채

금융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그룹공채로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회사는 지난해 12월 계열사에 편입된 대우건설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금호건설·금호고속 등 14개 계열사로, 모집인원은 약 500명 규모이며 지원자격은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여야 한다. 단 대우건설 인턴은 2008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한다.

입사희망자는 2~15일 금융아시아나 홈페이지(www.kumhoasiana.com)에서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과 한자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접은 1,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집단토의, 역량면접이고, 2차는 자필·인성면접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0일이다.

금융아시아나그룹은 오는 10월에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며, 항공승무원 등 계열사 자체 신입사원 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포함해 올해 약 2천여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현재 중기청장 순천 상인들과 간담회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4일 순천 4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중소기업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최근 급격하게 바뀌는 유통환경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순천지역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 청장은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소가 주관하는 ‘전남 동부권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의 장’ 행사에 참석,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심는가발 탄생!!

대형가발실 **가발** 전문시술

대신님녀프리오가발맞춤

상

덤프트럭용 자동달개

대리점 모집 안내

주요특징

- 2000cc 엔진
- 1000kg 적재능력
- 1000kg 적재능력

차체구조

- 2000cc 엔진 탑재
- 1000kg 적재능력
- 1000kg 적재능력

특인점

- 2000cc 엔진 탑재
- 1000kg 적재능력

(주)SY테크수업 | TEL: 055-242-1111 | FAX: 055-242-1111 | http://www.sytech.com